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연착륙 난망

기존 사납금제 유지·근로시간 단축 등 변칙 마련도, 점검·지도 소홀... 택시기사 열악한 처우 여전

법인택시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식인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에선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제도 또는 변칙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 택시기사들은 회사가 정한 기준 금액(사납금)을 내는 대신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수납한 뒤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법인택시업체가 기존 사납금제도를 여전히 시행 중이거나 일부 업체에선 변형된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당국은 택시업체로부터 제도 시행 여부만 확인

할 뿐 택시업계 대상 현장지도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내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경영상태를 겪으며 업체와 노동조합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제주도에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업계 사정을 감안해 미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행하지 않고 유예해 왔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측으로부터 제도 시행 유보 불가 지침이 내려오는 등 시행 안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 7월부터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수조사와 현장 지도·점검도 벌이지 않았으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금협정서만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도 안착은 커녕, 바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도의 폐해로 지적됐던 장시간 노동 등 근무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들이 기존 사납금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전액관리제를 변칙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 따르면 업체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해 수납·납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다.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설명했다.

도내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가 운송수입금 달성 기준액을 과도하게

설정해 사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어기고 4시간 10분으로 정한 사례 등 변칙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미타기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임금하고 매달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을 받는 제도"라며 "하지만 사측에서 기준액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전액관리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택시기사들도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모두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안업무 등으로 지도·감독을 나갈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100%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를 정착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 합류

농어업 먹거리 본부장 겸임 "이재명과 함께 될 것"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을 대선 캠프 공동상황실장으로 영입했다.

이 지사의 대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 의원을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던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과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선·총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지역 경선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 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과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배수진 치고 승부수 던진 이낙연 "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대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충무로에 제가 진 빛을 갚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지를 표명했다.

이 전 대표의 갑작스런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은 지난 4-5일 치러진 충청 지역 경선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얻은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첫 출발자인 대전·충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득표율에서 2배 넘는 차이로 밀리며 2위에 머물렀다. 다음 날 치러진 세종·충북 경선에서도 비슷한 득표율에 머무르며 캠프 전체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 민심에서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경선전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는 힘들

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대권 도전의 진정성을 당심과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숭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어서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라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요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미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찾은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11월 일상 회복안 검토" 관련 상황·지표 실무 논의 중

정부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오는 11월부터는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 관련 질문에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

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 확대로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70%가 완전히 접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일찍이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 전체적인 전환을 위한 지표나 여러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실무 논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이재명, 다음주 제주 방문 강금실 전 법무장관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주 제주를 찾는다.

이 지사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이재명 지사가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제주를 찾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지난 6월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경기도,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4자 간 '일본 후쿠시

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4·3유족회 등과의 간담회, 이재명 지지모임인 제주민주평화광장 출범식 강연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계획을 취소했다.

이날 강 전 장관은 "이 지사가 기후 위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생태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제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민들이 (기후 위기 등 생태 문제에 잘 대처하는) 이 지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